그 많던 유기견 어디로 갔나?

복더위속 개값이 금값…지난해보다 30% 올라

삼복더위가 계속되면서 개값이 '금값'이 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보신탕이 최고의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개값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올랐다. 그나마 국산 개를 구하기도 쉽지않다.

그래서일까. 휴가철을 앞두고 버려지는 애완견들은 늘고 있지만 식용으로 쓸 수 있는 10kg 이상 대형 개가 버려지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중복(中伏)을 하루 앞둔 28일 현재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접수된 유기견(遺棄犬)은 634마리. 이중 10kg 이하 소형 개는 573마리. 10kg 이상 대형 개도 61마리가 버려졌다. 그러나 복날이 들어있는 이달 들어서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대형 유기견 신고가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반대로 식용이 불가능한 소형 개를 버리는 경우는 7월 들어 120건에 달해 예년 휴가철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순 없지만 최근 버려지는 개 신고 건수가 줄었고 문의 전화도 부쩍 감소했다"고 말했다.

담양의 한 보신탕집 주인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여파로 보신탕이 최고의 여름보양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최근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힘들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개고기 수요 급증으로 어미개(12kg)의 경우 한 마리에 20만원을 호가해 지난해의 15만~17만원 선에 비해 최고 33.3%나 올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4.4도를 기록, 올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28일 낮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앞 도로에서 구청직원들이 산불진화용 차량을 이용, 가로 화단에 물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산불진화 소방차, 왜 도심 출동했나 했더니…

"가로수 살려라" 물뿌리기 작전

30도를 훨씬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광주시내 지자체들이 가로수 고사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로수와 가로 화분 고사 방지를 위해 동원된 것은 각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소형 소방차. 소형소방차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관내 가로수와 화분에 물을 공급해 뜨거운 날씨로 인한 고사를 막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 가로수는 은행나무 3만9천505 그루, 느티나무 2만2천803 그루, 이팝나무 6천517 그루, 왕벚나무 5천733그루 등 모두 10만6천750 그루. 또 도로 곳곳엔 관상용 화분 수십만개가 심어져 있다.

광주시 남구는 일주일에 한 두 번꼴로 산불진화용 1t 포터(용량 1천ℓ)를 이용, 가로수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북구도 적재용량 1천500ℓ짜리 산불진화용 1.5t 트럭 3대 이용, 이틀에 한 번꼴로 생룡동 우치동물원 앞 등 관내 294곳의 화단 등에 물을 주고 있다.

주택가 정원엔 인삼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까만 차광막이 등장했다. 북구 두암동에 사는 이일구(45)씨는 지난 5일 마당의 화단에 가로 5m, 세로 1.2m 크기의 차광막을 설치했다. 마당에 심어진 맨드라미·홍가시나무·철쭉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가로수 고사 방지를 위해 수시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폭염이 지속되고 마른 가뭄이 될 경우 차광막 설치는 물론 물 주머니를 구입해 수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올 첫 폭염경보

오늘 中伏

28일 광주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무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탈진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나주·화순 등 6개 전남지역과 광주시에 폭염 경보를, 담양·곡성·구례·장성 등 13개 전남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광양이 37.1도를 보인 가운데 화순 36.6도, 함평 36.2도, 나주 36.2도, 장성 35.5도, 광주 34.8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최고 17㎜가량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폭염속에 일을 하던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저수지에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28일 오후 1시20분께는 광주시 광산구 북산동 H저수지에서 홍모(80)씨가 물에 빠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홍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수지에서 낚시하려다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전 11시50분께에는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정모(80)씨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정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일부 지역에 5~20㎜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더위는 계속 이어지다가 30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대형 할인점 '대장균 샐러드'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샐러드 등 간편 채소 40%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즉석 샐러드용 채소 등 신선 편의식품 2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0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롯데마트가 5건으로 50%를 차지했으며 홈플러스 3건, 이마트 2건 등의 순으로 유명 할인점에서 유통되는 신선편의식품의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 편의식품은 채소와 과일을 세척, 절단, 포장한 후 판매하는 제품으로 가열조리 하지 않고 즉석에서 샐러드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한 ㈜롯데삼강, 싱싱원 등 5개사와 판매업체(유통전문판매업소) 2곳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소형차 타면 평생 3천만원 절약

'친환경 운전 10계명' 발표

환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기 위한 실천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10계명에는 중형차 대신 소형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를 타면 연료비만 평생 3천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①**경제속도 준수**=경제속도(시속 60~80km)를 준수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주행을 한다.

②**내리막길 가속페달 밟지 않기**=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

③**출발은 천천히**=출발할 때 처음 5초동안 시속 20km까지 천천히 가속해야 한다.

④**공회전은 그만**=5분간 공회전하면 1km 이상 주행할 연료가 낭비된다.

⑤**타이어 공기압 체크**=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50km마다 300원씩 낭비된다.

이밖에도 10계명에는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 ▲출발전 도로와 기상정보, 주행경로를 확인하는 '정보운전' 생활화 ▲친환경 자동차 선택 ▲크링크 비우기 ▲유사연료 사용금지 등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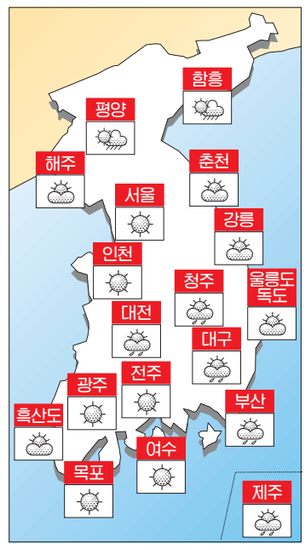
'탈진' 주의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7월 29일 (음 6월 27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26~35℃
목 포	구름 조금	25~32℃
여 수	구름 조금	25~31℃
완 도	구름 조금	25~33℃
구 례	소나기	25~34℃
해 남	구름 조금	24~33℃
장 흥	구름 조금	24~32℃
고 흥	구름 조금	24~34℃
순 천	소나기	25~35℃
영 광	구름 조금	25~33℃
진 도	구름 조금	26~35℃
전 주	구름 조금	24~33℃
남 원	소나기	23~34℃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목 포 밀물〈 10:48 --:-- 썰물〈 04:41 16:33
여 수 밀물〈 06:08 19:02 썰물〈 00:23 12:15

▲해뜸 05:39 ▲해짐 19:38 ▲달뜸 01:34 ▲달짐 17: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수)	31(목)	8/1(금)	2(토)	3(일)	4(월)
날 씨						
최저/최고	26/32	26/32	26/33	26/33	26/32	26/32

"상습폭행 당했다" 장교가 상관 고발

현역 육군 장교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상관을 국방부 등에 고발했다.

28일 장성군 육군공병학교 등에 따르면 이 부대에 근무하는 A대위의 가족이 "상관인 B소령이 상습적인 구타와 모욕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기무사령부, 국가인권위에 A대위 아버지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

A대위의 아버지는 고발장에서 "B소령은 아들의 직속상관으로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평점 평가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폭력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A대위 가족들은 B소령이 지난 24일 밤 A대위와 술을 마시면서 '술집 액자에 있는 그림 화풍'이나 '식당의 경영시스템'에 대해 물었다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A대위의 머리를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소령은 길에서도 A대위를 폭행했다가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A대위의 아내가 이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다음날 근무시간 중에는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등을 내리찍기도 했다고 A대위의 가족은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내년부터 'BK21' 성과 부진땐 탈락

내년부터 BK(두뇌한국)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가 도입되고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고지원시 대학에서 일정액을 대응투자하게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BK21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총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73개 대학, 총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06년 2월까지 1조3천42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어 있는 BK21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